

장흥군 '미래 먹거리' 현안사업 줄줄이 차질

로하스 타운, 분양률 저조
규모 줄이고 조성 시기 연기
수십억 들인 승마공원·승마장
2년째 사용도 못하고 방치
준공 5년 농공단지 96% 미분양

장흥군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핵심 현안인 로하스타운 조성 사업은 경기침체 및 저조한 분양률 등이 맞물리면서 차질을 빚고 있고 승마체육공원 등(말) 산업 육성 정책은 추진 의지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추진했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막대한 미분양 대금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내몰렸다. 지역 미래 성장 동력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사업들이라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갈 길 먼 로하스타운=로하스타운은 은퇴자나 귀농·귀촌자 등을 위한 친환경 생태 휴양도시를 만들겠다는 장흥군이 '야심차게' 추진중인 핵심 정책이다. 오는 2019년까지 단독·공동주택 등 1500세대가 거주하는 생태 휴양단지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분양률 저조로 애초 계획이 틀어지면서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157세대가 들어설 단독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축소되거나 늦춰지고 있다. 43세대가 거주할 단독주택 단지만 1차로 조성한 게 전부다. 39세대를 조성하려는 2차 계획은 사업시행기간 갈등으로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면서 분양 절차가 언제 진행될 지도 불투명한 형편이다. 장흥



로하스타운 전경. 인구 증가 및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던 로하스타운은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조성하고 있는 승마체육공원. 2년 전 준공된 실내·외 승마장은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도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승마장 활용 계획도 세우지 못한 상태다.

군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지를 매각, 넘겨줘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 절차 진행이 가능하지만 가처분으로 매각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공동주택은 언제 추진될 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말 길 장흥군은 1500세대로 계획했던 전체 규모를 1300세대로 축소하는 개발계획 변경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성 시기도 2019년에서 2025년까지 늦추는 계획도 세

워놓았다. 지선 도로망, 도시가스 등 공공 기반시설분야 정비도 미흡해 입주민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말 뿐인 말(馬) 산업육성=장흥군은 지난 2015년 말(馬)산업을 농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한국마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말 산업 발전과 활성화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2년이 지난 현재 찾아보기 어렵다.

말 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승마체육공원의 활용 계획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승마체육공원 조성 들어간 예산만 44억8200만원(국비 18억5000만·군비 25억200만·도비 1억3000만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활용 계획도 없고 관련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 또 실내(2450㎡)·외(4383㎡) 승마장은 2년 전인 2015년 완공하고도 국비 확보가 늦어지는 바람에 마방(38만·605㎡)·퇴비사(149㎡) 설치공사 등이 늦어져 여태껏 사용도 못하고 있다.

장흥군이 보유하고 있는 말 3마리도 연간 2000만원을 주고 민간에 관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승마체육공원이 올 해 말 완공되더라도 말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승마장 운영 인력 및 말 관리 전문가, 교관 등 관리 인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민간에 위탁하겠다는 게 장흥군 입장이다. 일각에서 국비 등 수십억원을 들여 만든 승마장을 민간 개인사업자 수익사업을 위해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외 장흥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한 장흥농공단지도 준공(2013년 1월) 5년째 접어들었지만 전체 분양면적(14만9890.9㎡)의 95.7%(9만3748.2㎡)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장흥군은 농공단지 조성엔 투입된 비용 116억2400만원 중 미분양 토지에 대한 조성원가(76억5600만원)를 농어촌공사에 현금으로 지급기로 했다는 점에서 재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분한 사업성 검토도 없이 졸속 추진한 데다, 분양 전략 부재, 경기 침체 및 지역 업체들의 투자 여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빚어진 사태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영암에 국립종자원 제2정선센터 착공

290억 투입 2019년 완공

영암에 들어설 국립종자원 벼 종자 제2정선센터(조감도)가 착공했다.

26일 영암군에 따르면 정선센터는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 정부 보급종자의 불순물을 제거해 농가에 보급하는 시설로, 최근 건립 공사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국비 250억원을 들여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대에 건축 연면적 6800㎡ 규모로 오는 2019년 3월 완공 예정이다. 공장동, 청사동, 관리동 등으로 이뤄지며 2000t 규모 정선처리 능력을 갖추게 된다.

쌀 주산지인 전남은 고품질 벼 종자 수요가 많지만, 정선시설이 부족해 종자 공급률이 전국 평균(58%)에도 못 미치는 47% 수준이다.

영암군은 이같은 점을 들어 정선센터가 완공되면 벼 보급종 공급률을 70%까지 높이고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량 종자 보급에 참여하는 농가의 수익 증대는 물론 정선시설 운영에 1000여명이 투입돼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종자원은 다음 달 종자공식을 계획하고 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분양률 20% 돌파

영암 특화 농공단지가 준공 5개월만에 20%가 넘는 분양률을 기록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준공된 지 5년이 넘도록 미분양률이 95%가 넘는 농공단지(장흥)와 비교하면 치밀한 주변 수요를 분석, 특화된 계 농공단지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월 준공된 영암 식품 특화농공단지(11만 6000㎡)의 20개 블록 중 5개(25.8%·3개 업체)가 계약을 체결했다.

산업시설 용지(8만641㎡) 중 2만823㎡가 분양된 것으로, 경기침체 및 지역 업체들의 투자 여력 부족 등이 맞물리면서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농공단지가 적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군서·신북 농공단지도 100% 분양이 마무리된 상태다. 군서 농공단지(12만 8000㎡)의 경우 14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신북(13만 2000㎡)도 15개 중 11개 업체가 공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암군 관계자는 "3.3㎡당 19만원의 비교적 저렴한 분양가, 교통여건 등을 갖춘 단지로 알려지면서 입주 희망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기자 jbh@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12월 개원·진료

한·양방 100병상 규모

국내 대체의학 선도하게 될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이 오는 12월 개원하고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통합의료한방병원은 개원에 앞서 '2017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 기간(20~26일)에 박람회 관람객들을 상대로 무료 진료를 받았다.

병원측은 특히 박람회 홍보관에서 한의학·서양의학이 융합된 대체요법을 선보여 노년층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박람회 기간, 130명이 넘는 첨단 의료장비

를 갖춘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통합의료한방병원은 1만8494㎡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연면적 9203㎡) 규모로 295억원을 들여 건립됐다. 병원은 한방·양방내과 등 2개의 진료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첨단 의료장비를 갖춘 영상의학과, 한방재활과, 임상센터를 두고 있다.

병원측은 100병상(25실) 규모로 개원한 뒤 2019년까지 200병상 규모로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 의사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한의대생들을 위한 실습·연구도 진행된다.

전남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거쳐



장흥통합의료한방병원 전경. <장흥군 제공>

원광대가 위탁, 운영하게 된다.

장흥군은 한방과 양방을 겸비한 대체의학을 선보이는 통합의료기관이 들어서게

됐다는 점에서 지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강진군 내일 망호선착장서 작은음악회

강진군은 오는 28일 오후 5시 도암면 망호선착장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를 연다.

이날 공연은 2017년 '문화가 있는날'에 진행되는 강진만 노을빛 누리축제의 하나로, 축제 이름을 비롯해 프로그램 기획·진행·홍보 등 전 과정을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강진 군민이 함께 만드는 게 특징이다.

지역 문화예술역량을 키워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공연은 오후 4시 한예중 전통예술원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민요, 탈춤, 연희, 판굿을 시작으로 지역 예술단체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연과 함께 깊어가는 강진의 가을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170만원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무인텔”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예정)
- 요양병원, 연수원 등 용도변경 가능

친절상담 010-3605-5000